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의회에 대한 압박 커지는 중... 부채 한도 협상 지연 탓

[금융]

- Bloomberg: 연준의 Goolsbee “금리 인상 영향 여전히 존재”
- Bloomberg: ECB, 높은 금리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세금]

- WSJ: IRS “미 정부 운영 세금 준비 옵션 개발 검토 중”

[아시아 소식]

- Bloomberg: 중국 경제 데이터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
- WSJ: G7 정상, 중국의 '경제적 강압' 노릴 듯
- Bloomberg: 한국, 중국보다 일본에서 더 많은 맥주 수입

[자동차]

- CNBC: 미국인들 차 잘 안 바꾼다... 높은 물가와 이자율 탓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Vice Media 파산 신청하다
- WSJ: Mega-Pipeline 설립을 위한 140억 불 규모의 인수합병

[보고서]

- Harvard Business Review: AI, 정확하고 투명할 수 있다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Late Start for Debt-Limit Talks Amps Up Pressure on Congress 의회에 대한 압박 커지는 중... 부채 한도 협상 지연 탓

-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직면 했지만, 물류 장애와 회담 범위에 대한 의견 불일치, 입법 일정 등으로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협상이 지연 되고 있다.
-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은 부채 한도를 높이고 지출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약 2주가 지났음에도 고위급 회담을 열지 않았다. 이는 수개월 간의 내부 논쟁 때문이다.
-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은 저번주 금요일에 두 번째 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이번주 초로 연기 했다. 하원과 상원은 이번 달에 한 주만 개회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G7 회의를 위해 해외로 떠날 예정이다.

WSJ 기사

[금융]

Bloomberg: Fed’s Goolsbee Says Impact From Rapid Rate Hikes Still to Come

연준의 Goolsbee “금리 인상 영향 여전히 존재”

- 시카고 연준은행 총재인 Goolsbee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여전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 조치를 평가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6월 13~14일 회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지난달 금리 인상은 은행 부문의 혼란을 고려할 때 “이른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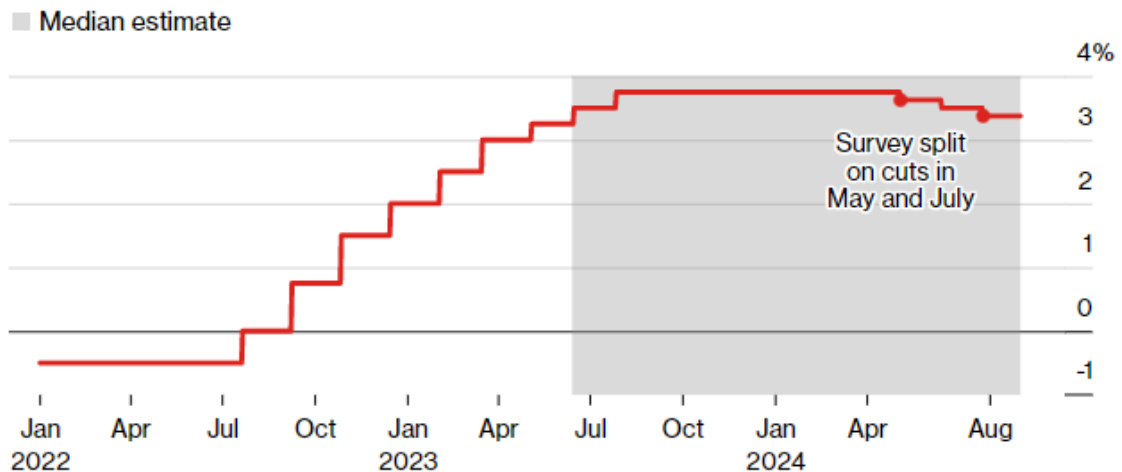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ECB Seen Keeping Rates High for Longer Amid Sticky Core Pr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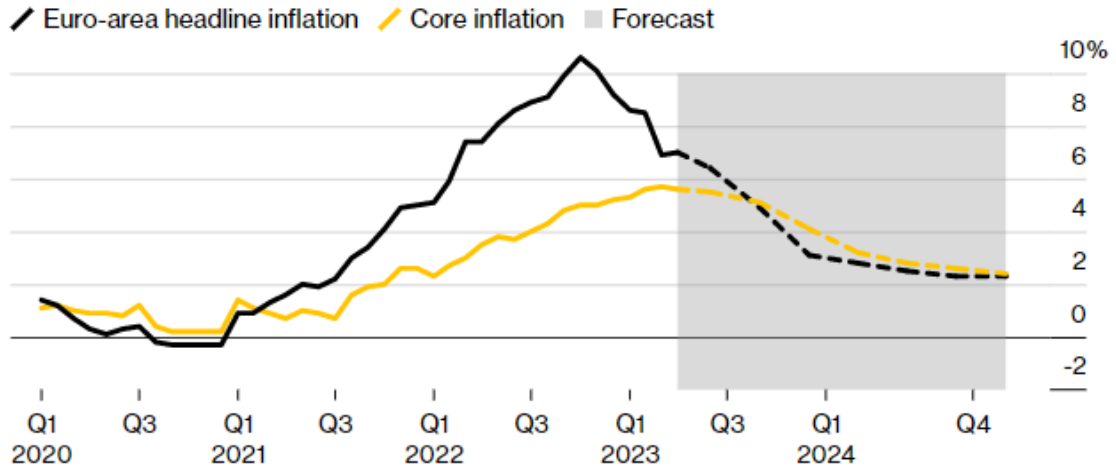
ECB, 높은 금리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다. 인플레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예금금리는 3.75%로 최고치에 해당한다. 이의 첫 번째 인하는 2024년 2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4분기에는 전체 물가 상승률이 2.4%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로 지역의 경제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0.4%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ECB Deposit Rate to Stay at 3.75% for at Least Nine Months



Core Inflation May Take Longer to Slow Down



Source: Bloomberg survey of economists conducted May 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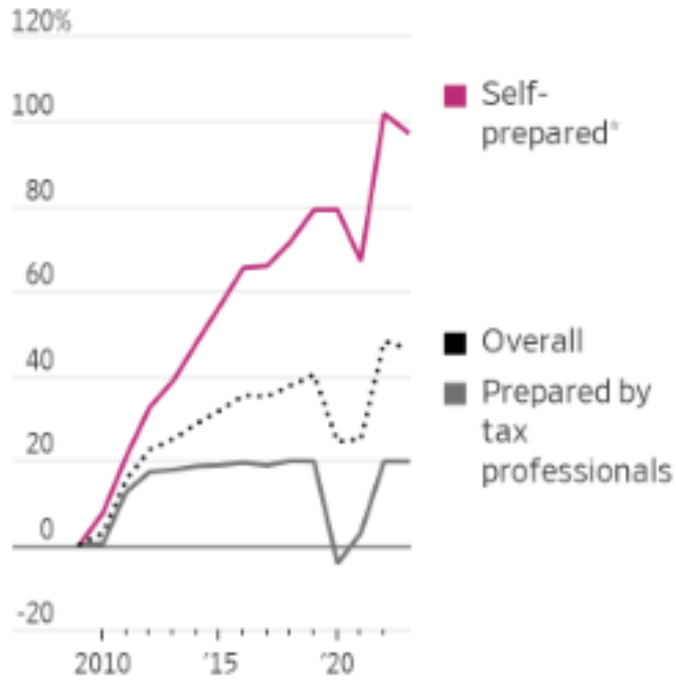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미국 세금]

WSJ: IRS Weighs Creating a Government-Run Tax-Prep Option IRS “미 정부 운영 세금 준비 옵션 개발 검토 중”

- 민주당과 소비자 옹호자들은 국세청이 무료 온라인 세금 신고를 제공하도록 추진했다.
- 그들은 세금 신고 대행 업체가 미국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 세금 신고 대행 업체들은 연방 세금 신고서 제출을 포함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엔 무료 보고 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는 3%에 불과 했다.
-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를 제공하고 있다. 재무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확보한 정보로 개인 세금 신고서의 절반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Change in tax returns e-filed each year through April, from 2009



*Includes do-it-yourself software
Source: IRS

Preferred method for filing simple tax returns online

- IRS prefilled and automatically filed return
- IRS-made tax-filing software
- Current software

IRS methods would include state returns



IRS methods would not include state returns



Notes: Only includes respondents from states that require a return to be filed. Assumes simple filers would have the same features across all methods and all would be free.

Source: A MITRE online survey of 764 U.S. taxpayers who used online filing services for their 2021 taxes, conducted Dec. 7-12, 2022

[아시아 소식]

Bloomberg: What to Watch in China's Economic Data as Recovery Loses S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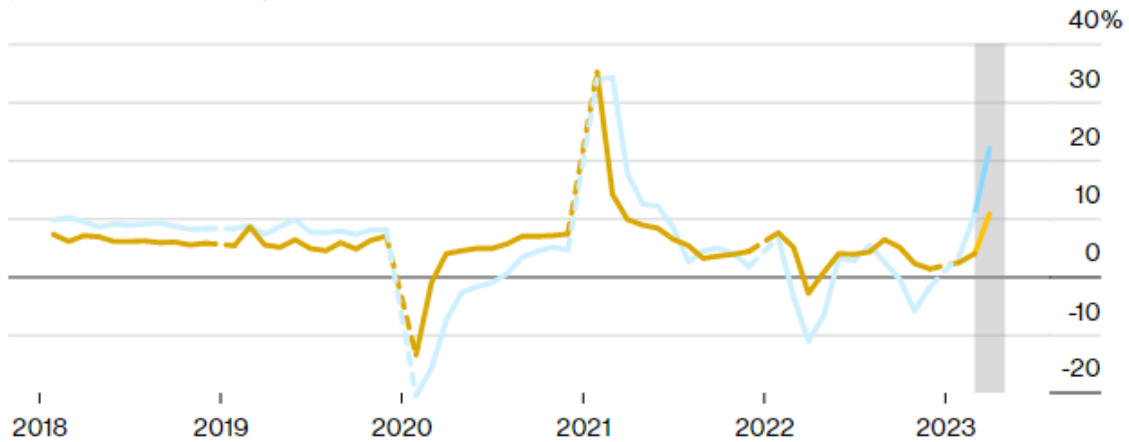
중국 경제 데이터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

- 산업 생산량: 산업 생산은 4월에 전년 대비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년 대비 10.8% 급증했다. 3월의 전년 대비 3.9%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 하지만 월별 수치로 보면 4월이 3월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수요가 냉각되고 제조업 조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Favorable Comparison

Retail sales, industrial production data likely distorted by weak base

China industrial output value added Economists' consensus estimate
Retail sales value Economists' consensus estimate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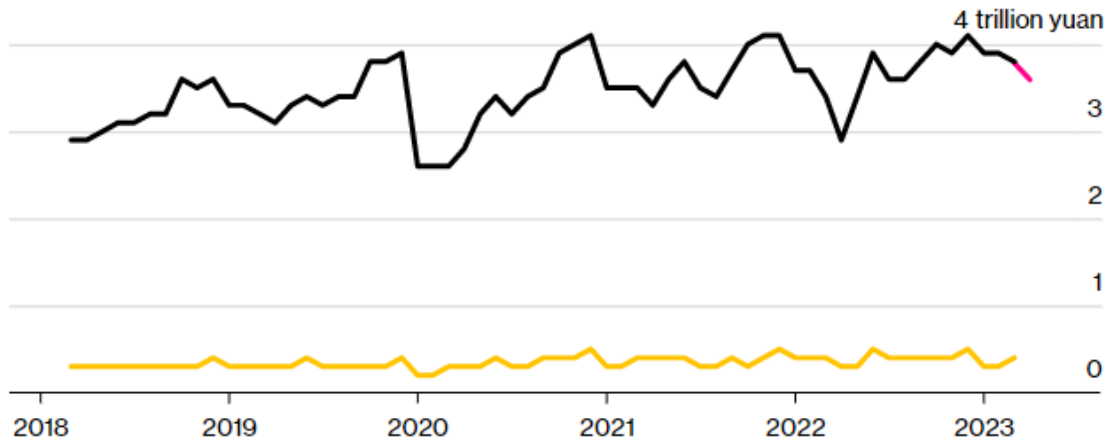
Note: No single month data for January. Jan-Feb. data is combined by the NBS

- 소비자 지출: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매 판매에서 4월 전년 대비 22%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람들이 외식과 여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강세를 보였다.
- 그러나 상품에 대한 지출은 주춤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과 가구,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냉각되었기 때문이다. 월별 기준으로 전체 소매 판매 성장률이 3월의 2.9%에서 4월 0.3%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Not a Recovery

Retail sales expected to weaken from March in China

Retail sales Retail sales forecast Car sales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ote: Only cumulative value of sales in Jan.-Feb. are reported. Value split equally between these months for charting purposes.

Bloomberg 기사

WSJ: G-7 Leaders Expected to Take Aim at Chinese 'Economic Coercion' G7 정상, 중국의 '경제적 강압' 노릴 듯

-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 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정책 분쟁과 의견 불일치로 인한 국가에 대한 경제 보복 사용을 거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성명에는 특정 국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에 나온 성명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다.
- Tom Cole 하원의원(민주, Okla.)은 중국의 경제 강압이 “미국의 경제 안정과 국가 안보, 그리고 전 세계 우방과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Korea Imports More Beer from Japan Than China Again as Ties Warm 한국, 중국보다 일본에서 더 많은 맥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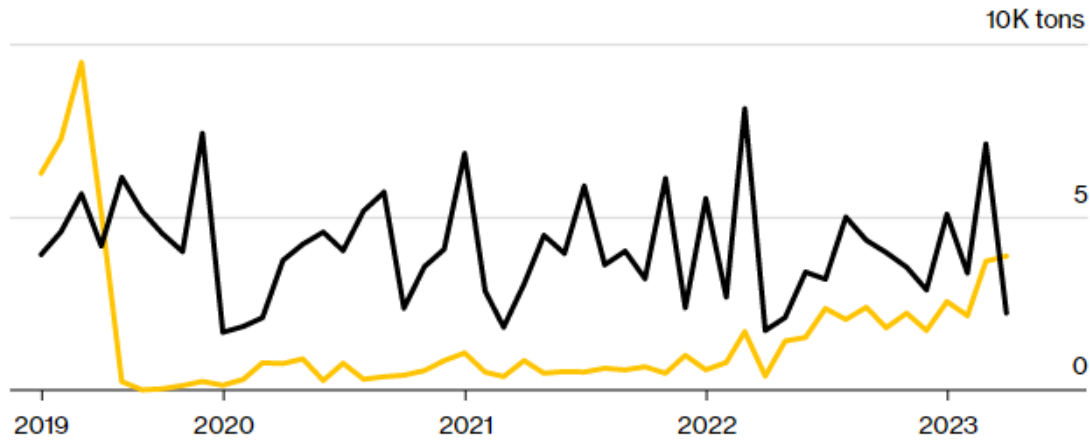
- 한국의 일본 맥주 수입량이 201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중국 맥주 수입량을 앞질렀다.
- 이번주 월요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4월에 일본에서 3,870톤의 맥주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 대비 9배가 넘는다.

- 반면 한국이 4월에 중국에서 수입한 맥주는 2,226톤으로 줄었다.

Bottoms Up!

Korea beer imports from Japan surpass China for first time in 4 years

Beer imports from China (tons) Beer imports from Japan (tons)



Source: Korea Customs Service

Bloomberg 기사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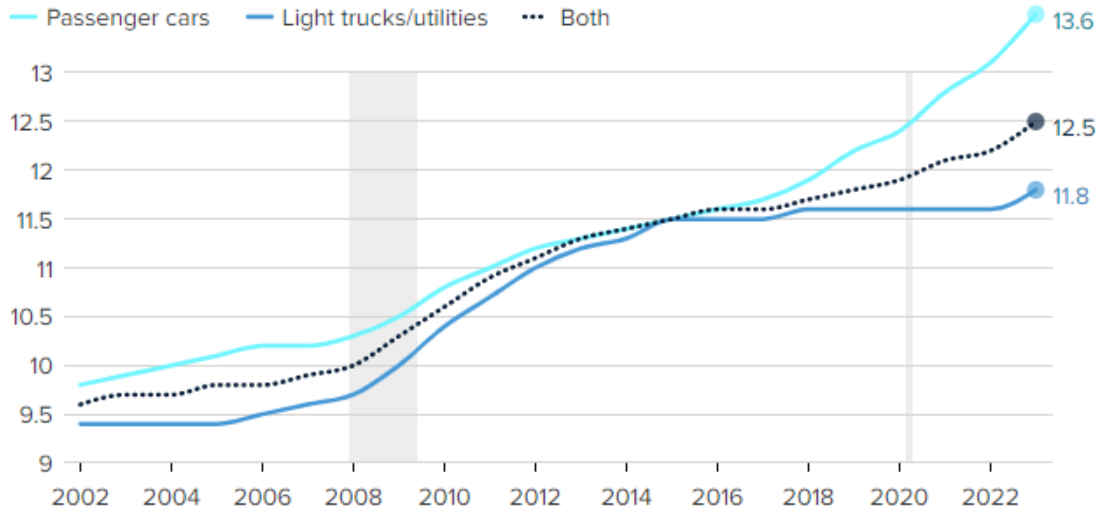
CNBC: Americans are keeping their cars longer amid sky-high prices, rising interest rates

미국인들 차 잘 안 바꾼다... 높은 물가와 이자율 탓

- S&P Global Mobility에 따르면 미국 경차 평균 수명이 3개월 이상 증가해 12.5년을 기록했다. 이는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 승용차의 경우 3.8% 증가한 13.6년, 트럭과 SUV 및 크로스오버의 경우 11.8년으로 1.7% 증가했다.
- S&P에 따르면 차량 평균 수명이 오른 이유는 낮은 신차 공급과 금리 인상, 인플레이 등으로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동차를 더 오래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Average age of vehicles in the U.S.

In years



Note: Shaded areas indicate recessions.

Chart: Gabriel Cortes / CNBC

Source: S&P Global Mobility

Data as of January 2023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Vice Media to Sell Itself as It Files for Bankruptcy Vice Media 파산 신청하다

- Vice Media가 구조 제안을 받고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광고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 이 회사는 이번주 월요일에 채권자 그룹이 약 2억 2천 5백만 불에 Vice를 인수하고 상당한 부채를 떠안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Vice Media는 2017년에 TPG로부터 4억 5천만 불의 투자를 받고, 57억 불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았다. 미국에서 가장 가치있는 뉴미디어 회사로 부상했던 것이다.

WSJ 기사

WSJ: \$14 Billion Deal to Create Mega-Pipeline Company Mega-Pipeline 설립을 위한 140억 불 규모의 인수합병

- Pipeline의 운영자인 Oneok은 Magellan Midstream Partners를 약 140억 불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에너지 운송 및 저장과 관련된 미국 최대 기업 중 하나를 형성할 것이다.
- 주식 88억 불과 현금 51억 불을 포함한 이 거래는 저번주 금요일 Magellan의 보통주 대비 22%의 프리미엄에 달한다. Oneok은 Magellan의 순부채

50억 불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올해 지금까지 발표된 에너지 거래 중 가장 큰 거래가 될 것이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작년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올해 미국 석유 및 가스 부문이 주요 기업 거래가 되었다.

WSJ 기사

[보고서]

Harvard Business Review: AI Can Be Both Accurate and Transparent AI, 정확하고 투명할 수 있다

- 요약: 약 100개의 데이터 세트에서 AI 모델을 테스트 한 결과, 70%의 시간 동안 정확성이 유지된 상태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불투명 모델은 편향, 현평성 및 신뢰와 관련된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블랙박스” AI도 구를 운영에 통합하기 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 화이트박스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규칙만 포함한다. 규칙이나 변수의 수가 적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프로세스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블랙박스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규칙, 수십억 개의 변수를 사용한다. 이로 인해 사람이 블랙박스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 기본 값은 화이트박스: 화이트박스는 ‘블랙박스가 필요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조직은 모델 유형을 택하기 전에 두 가지 모두를 테스트해야 한다. 차이가 미미할 경우 화이트박스를 선택해야 한다.
-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 데이터에 오류나 불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화이트박스가 효과적인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블랙박스가 효과적일 수 있다.
- 사용자 파악: 투명성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항상 중요하다. 사용자에게 공정한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는 블랙박스 접근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 설명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 조직 파악: 직원들이 AI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화이트박스를 택하는 것이 옳다. 즉, 팀이 화이트박스에 익숙해진 뒤 블랙박스 옵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Harvard Business Review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개인 투자자 41%, 증시 전망 비관..."일각선 매수 기회"

"1년간 기관·개인 484조원 순매도...단기금융시장에 7천100조원 쏟아"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가 미 주식시장에 대해 비관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매수할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기관과 개인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증시에서 각각 3천339억 달러(약 446조9천억 원)와 280억 달러(약 37조5천억 원)를 순매도했다고 WSJ은 전했다.

기관들이 주식 보유량을 크게 낮춘 것은 물가 상승과 높은 금리, 경기 둔화 속에 은행 부문의 혼란이 겹쳤기 때문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